광주 5개구에 '공동체 주택' 들어선다

〈주거복지+공유경제〉

市, 내년 3월까지 노후주거지 대상 사업지 선정

주거환경 개선에 사회적·마을기업 묶어

낙후된 광주 도심 곳곳에 기존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사회적·마을기업을 패키지로 묶은 새로운 개념의 '공동체 주택'이 들어선다.

기존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을 재정비하는 이른바 겉모습에 치중한 사업이었다면, '공동체 주택 사업'은 주거 복지 향상은 물론 내실있는 사회적 경제시스템까지 추가해 마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자치마을 모델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오는 2019년까지 자치구별로 1개소씩 총 5개소의 '공동체 주택'을 조성하기로 하고, 1단계로 2018년까지 1개소를 시범 조성할 계획이다.

'공동체 주택' 대상지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마을 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며,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도시재생 사업과 함께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 시스템을 접목해 마을 공동체 회복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된다.

시는 이를 위해 이달 말까지 마을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문화, 복지, 재생 등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해 사업방향과 접근전략, 정책수단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시는 내년 3월까지 기존의 공·폐가와 노후주거지 등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한 뒤 주민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오는 2018년까지 1개소의 시범단지 조성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공동체 주택'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기존 전면 재개발이나 재건축 형태의 도심재생 방식에서 벗어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더불어 낙후된 도심 경제를 되살리는 신개념의 주택 정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상철 광주시 도시재생사업 담당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가구 분화, 도심 재개발 등에 따른 마을 공동체 붕괴를 비롯한 노인·차상위 계층의 주거환경 파괴 현상 등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면서 "이번 공동체 주택사업을 통해 낙후된 주거환경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은 물론 개인 단위가 아닌 공동체 단위의 경제시스템을 구축해 마을 구성원 모두가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연휴 없는 위안부 문제해결 정기집회

10일 추석연휴 마지막날에도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집회는 열렸다. 서울시 종로구 중학동 일본대사관 앞에서 집회 참석자들이 일본의 반성과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남 거주지 따라 출산장려금 최대 20배

완도 1400만원·무안 70만원…지난해 22개 시·군 193억원

전남도내 지자체에 따라 출산 장려금이 최대 2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를 비롯해 도내 22개 시·군에서 출산 장려금을 지원하는 가운데 완도군이 일곱째 아이에게 1400만원을 지원, 최고액을 기록했다.

장려금이 가장 적은 무안군의 70만원과 비교하면 20배 많은 액수다.

여수시와 순천시, 무안군은 첫째와 둘째아이는 주지 않고 셋째부터 장려금을 주고 있으며 목포시와 고흥군, 화순군, 장흥군 등은 둘째아이부터 주고 있다. 자녀수에 따른 시·군 평균 장려금은 첫째가 158만원, 둘째 164만원, 셋째 444만원, 넷째 533만원, 다섯째 546만원, 여섯째 550만원, 일곱째 555만원이다.

가장 많은 장려금을 주는 지자체는 첫째와 둘째는 나주로 470만원을, 셋째는 함평이 1170만원을, 넷째와 다섯째도 역시 함평이 각각 1270만원을 지원했다.

여섯째는 완도가 1300만원으로 최고액이며, 일곱째도 완도가 1400만원으로 도내 최고액이다. 전남도청 이전 등 서부권의 새 행정타운으로 부상중인 남악신도시가 조성된 무안군이 셋째부터 일률적으로 70만원을 지급, 가장 적었다.

무안군은 화순군과 함께 도내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고 있는 지자체다.

장려금을 일시 지급하는 지자체는 전남도와 목포, 무안 등 6곳에 불과하고 17개 시군은 분할지급하고 있다. 출산 장려금을 받고 난 뒤 다시 도회지로 이주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도에서다.

지난해 전남도내 지자체에서 지원한 출산장려금은 연인원 6만2399명에 193억원에 달했다.

전남도가 일률적으로 30만원씩 지원, 모두 46억6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시군에서는 해남군이 24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양시 14억2000만원, 보성군 12억5000만원, 여수시 11억9000여만원 등이다. 무안군이 8200만원으로 시·군 중 지원액이 가장 적었다.

한편 전남지역 합계출산율(여자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자녀수)은 1.52명으로 전국 1위다. 해남, 영암, 강진, 광양, 함평 등 5개 시·군이 출산율 순위 전국 10위 안에 들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영암 F1' 내년 대회 무산될 듯

국제자동차연맹 2015 F1 캘린더 잠정안에 한국 제외

2015년 F1(포뮬러원) 코리아 그랑프리(GP) 개최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는 이낙연 지사 취임 후 F1 대회 개최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해 왔다.

10일 F1대회 조직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제자동차연맹(FIA)이 공개한 2015년 F1 캘린더 잠정안에 한국이 제외됐다. 내년 대회는 3월15일 첫 경기인 호주대회를 시작으로 11월29일 아부다비까지 모두 20경기가 치러질 것으로 예고됐다.

한국대회가 빠진 대신 멕시코 대회가 10월25일 열린다. 멕시코의 F1 무대 복귀는 23년 만이다.

최종적인 F1 캘린듯는 연말께 확정되지만 버니 에클레스톤 FOM 회장의 '한국대회 개최 부정적 발언' 등으로 미뤄볼 때 이변이 없는 한 이대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F1 코리아 그랑프리는 오는 2016년까지 7년간 개최가 약정돼 있어 전남도가 대회 개최를 일방적으로 취소할 경우 1억달러로 추산되는 위약금, 국제 신인도 하락 문제 등이 걸려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까지 F1대회가 열리지 않으면 남은 대회는 2016년뿐이다.

전남도는 멕시코 등 다른 나라가 대회에 참여함으로써 한국대회가 자연스럽게 누락될 경우 소송 등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0년 첫 대회를 치른 F1 대회는 '초대형 국제 스포츠의 성공 개최'라는 이면에 4년 누적적자가 1910억원에 달하는 등 '부실사업'이라는 오명도 함께 갖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어느 정도 예상됐던 일로, 문제는 2016년 대회 개최 여부"라며 "위약금 등의 문제가 없다면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때 개최하지 않는 것이 전남도의 재정에 보탬이 되겠지만 여러 가지 검토해야할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스마트폰으로 동대표 선출

광산구 호반베르디움 입주민

광주 광산구는 호반베르디움 6차 아파트(신창동) 입주민들이 15일 스마트폰으로 동대표를 선출한다고 10일 밝혔다.

입주민들은 광산구가 개발한 모바일 앱 '아파트너'를 '플레이 스토어'에서 내려받아 투표에 참여하면 된다.

광산구는 아파트 공동체 앱 보급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관리비 조회, CCTV 시청, 택배 알림, 주차공간 검색 기능을 추가해 모바일 앱 사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문화전당 인력 52명 공채

아시아문화개발원(개발원)이 내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앞두고 전시·공연 및 행정(회계) 부문 인력 52여명을 공채한다. 채용 부문 직급은 전시·공연 관련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등으로, 문화전당 아시아 예술극장·정보원·창조원·교류원·기획운영 관련 프로젝트 및 사업 지원 업무를 맡는다. 채용인원은 기획운영 9명, 교류원 8명, 정보원 13명, 창조원 15명, 예술극장 4명, 회계·행정지원 3명이다.

해당 분야 경력자 및 외국어 우수자, 장애우,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우대한다. 원서 접수는 오는 15일까지 인터넷 및 우편으로 가능하고, 1차 서류전형, 2차 면접전형을 거쳐 이달 하순께 최종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www.asiaculturecity.com),아시아문화개발원(www.iacd.kr),광주시(www.gwangju.go.kr)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거나, 개발원 인사회계팀(062-410-3527)에 문의하면 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